영덕 나옹왕사 선명상센터, 운영 본격화

선명상 중앙본부, 9월 29일 간담회
가을 프로그램 및 운영 방향 공개
나옹선사 순례, 과학·호흡 캠프 등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지난 7월 22일 개원한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전경.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이하 선명상 중앙본부)가 위탁 운영하는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10월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선명상 중앙본부는 9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덕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의 가을 프로그램과 향후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 7월 22일 개원한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기존 영덕 인문힐링센터 시설을 활용해 조성됐다. 선명상 중앙본부가 영덕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불국사의 지원을 통해 마련된 지역 선명상 치유센터다.

센터는 영덕 출신인 나옹왕사의 수행 정신을 계승하고, 선명상을 통한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전통문화·웰니스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의 첫 프로그램은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나옹선사 성지순례 치유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나옹선사의 출가지인 문경 대승사 묘적암을 비롯해 깨달음을 얻은 양주 회암사, 열반에 든 여주 신륵사 등을 차례로 순례하며 선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10월 17일에는 '과학자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호흡 치유 캠프'가 열린다. 박문호 박사가 명상과 뇌과학, 호흡의 관계를 주제로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10시간에 걸쳐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꿀포츠'로 알려진 성악가 김성록 씨와 함께하는 '치유 노래 명상 캠프'가 마련된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한 김성록 씨는 지난 7월 센터 개원식에서도 축가를 맡은 바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노래와 명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신 치유를 돕는다.

주말에는 '선명상 스테이'가 상설 운영된다. 당일 프로그램부터 1박 2일, 최대 10일까지 체류하며 선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자연건강식을 함께 제공해 휴식과 치유를 돕는다. 개인뿐 아니라 단체 참가도 가능하다.

센터는 지역 웰니스 행사에도 참여한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 참가해 선명상 홍보 부스와 웰니스 푸드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선명상을 알리는 한편 사찰 음식을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성만제 조계종 미래본부 차장과 박희승 나옹왕사 선명상 치유센터장이 참석해 센터의 설립 취지와 주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만제 차장은 "선명상 일상화 염원을 담아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문시설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간화선을 기반으로 선명상을 펼치는 전문 수행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센터장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휴식과 치유가 필요하다"며 "선명상과 호흡 명상을 통해 편안하게 휴식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시설에 불교의 수행 전통을 접목해 선명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영덕 센터가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 선명상을 알리고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www.ydwellness.org)서 확인 가능하다. 054-730-5820

도반HC·선우HK, 불교 제례 보존 협력

9월 21일 다비·49재 보급 MOU
승려복지·불자 복지증진 기대



스님이 입적하면 다비로 마지막 길을 모시고, 고인을 떠나보낸 가족은 사찰에서 49재를 봉행하는 불교의 제례 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도반HC와 선우HK가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사업·보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승려노후복지와 불자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성진 스님)와 흥국생명 제례보험 전문 판매법인 ㈜선우HK(대표이사 박채원)는 9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9재 하늘소풍 제례종신보험' 및 '해탈다비보험'의 조계종 사찰 보급과 판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9재 하늘소풍 제례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후 제례를 봉행할 '사찰'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유가족이 제례 비용과 절차로 인해 겪는 갈등을 방지하고, 고인을 사찰의 여법한 의식 속에서 평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해탈다비보험'은 전통 다비식이 처한 물리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의 장례 문화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평생 수행에만 정진해 온 스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여법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반HC는 두 제도가 전국 조계종 사찰에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할 방침이다.

도반HC 사장 성진 스님은 "사찰 단위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기적으로는 종단 차원의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날까지 노력하겠다"며 불교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태고종 청련사, 군포교 활성화 나선다

9월 21일, 쌍용여단과 MOU
상진 스님, 장병 위문금 전달



태고종 청련사(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가 육군 쌍용여단(부대장 최한수 대령)과 9월 21일 민군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장병들의 종교활동과 복지 증진, 정신전력 강화,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부대는 청련사 요청 시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일대 등 DMZ 안보견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 또 부대 일정상 제한이 없을 경우, 파주 및 문산 지역 일대에서 진행하는 청련사의 문화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청련사는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부대에 분기별 위문금 및 위문품을 지원하는 한편 부대 종교시설인 무선사에 월 단위 위문금을 지원해 장병들의 종교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또 부대 요청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무형 전투력 발전을 위한 특별 인성교육 강사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상진 스님은 군부대는 젊은 세대에게 불교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포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군법사의 역할을 강조한 스님은 "군법사들이 젊은 군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군법사들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최한수 부대장은 "오늘 인연이 최고의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을 마친 상진 스님은 장병들을 위한 위문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파주=임은호 기자

칠백의총 순의제향, 승병·의병 함께 기렸다

9월 23일, 칠백의총 종용사
불교계 참석…불교의례 봉행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9월 23일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봉행됐다.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나라를 지키다 순절한 승병과 의병의 넋을 기리는 제434주년 칠백의사 순의제향이 9월 23일 금산 칠백의총 종용사에서 봉행됐다.

국가유산청 칠백의총관리소가 마련한 이날 순의제향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칠백의사 후손과 불교계 스님,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종봉 스님(관촉사 주지)과 태고사 태진 스님, 인취사 태정 스님, 가산사 지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특히 동학사 주지 경원 스님의 인솔하에 학인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해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순절한 선열들의 넋을 추모했다.

스님들은 유교식 전통 제례로 진행된 순의제향에 함께한 뒤 제향을 마치고 의총으로 이동해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넋을 기리는 불교의례를 봉행했다.

종봉 스님은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섰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공훈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활동해 왔다"며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영규 대사와 승병들의 역할과 희생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호국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칠백의총이 승병과 의병이 함께 나라를 지킨 호국의 현장임을 강조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불교계가 동참한 의미를 짚으며 금산전투와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날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고 청주성을 탈환한 뒤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자리도 마련됐다. '기허당 영규 대사 제434주기 추모다례문화제'에는 특히 의병들의 후손들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원경 스님은 "앞으로 영규 대사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 함께 순국하신 모든 분을 기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면서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뜻을 더욱 승화시켜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